

Baroque 직물에 나타난 Floral 패턴의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선화¹⁾ · 권영숙²⁾

1) 동주대학 토털패션계열

2)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Floral Pattern in Baroque Textile

Sun-Haw Lee¹⁾ and Young-Suk Kwon²⁾

1) Dept. Total Fashion, Dong-ju College, Busan, Korea

2)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 Patterns presented at baroque were mostly floral pattern. Abstract anonymous flower, tulip, Acanthus leaf, pomegranate were blended with one another and had a distinct leaning toward continuation and repetition. Components of design could be classified into flower and leaf, flower and fruit, flower and circumferential ornament, bunch of flowers, flower and pot, flower and geometry, and flower and animal. Floral patterns in this era were mostly fullness type being large, simple, and having more formalized motive and were fronted with unit type and vine shape. Unit type shows reflection of baroque style which aims to present absolute unification rather than freedom, which was inherent property of baroque style, by using symmetric pattern. Vine type were unfolded with C type curved line which was main characteristics of that time and showed flowage as a whole and pliable beauty. Floral pattern was filled the whole surface of fabric, thus background of fabric can not be discerned. So, it showed extreme decorative tendency and lavishness.

Key words : baroque style, floral pattern, C type curved line, decorative, fullness type

1. 서 론

현대 패션은 산업과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에 따라 꾸준 히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여 신소재를 출현시키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 호응을 받는 직물을 생산하고 있다. 신소재 개발에 대한 관심은 복식 디자인의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도 주목되고 있으며, 모든 복식조형 관련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 이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이러한 신소재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패턴에서 미적인 가치가 크게 작용하므로 복식조형의 주요한 요소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테면 현대 패션산업의 경쟁력은 결국은 소재개발과 패턴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직물의 표현력이 중시되고 있으며, 의상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바로크 시대는 화려하고 비약적인 예술과 복식의 발전이 어느 시기보다도 두드러져 서양 복식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복식의 발전과 더불어 직물 또한 매우 다채 롭고 풍부하게 발달되었다. 당시의 직물은 단순한 직물이 아 니라 예술작품으로서 생산되었으므로(박춘순, 1985) 그 고전

적인 패턴은 오늘날 디자인적인 면이나 미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아 텍스타일 디자인계에서 활용도가 높고, 현대인들에게 애용되고 있다.

이 시기의 텍스타일 디자인의 모티프는 floral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floral패턴은 오늘날의 텍스타일 디자인에도 70%~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주제로서 계속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패턴이다(차임선, 1999). 따라서 당시의 복식에 나타나고 실내장식의 미술적 장식 모티프가 된 floral패턴에 관한 이해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소재 개발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디자인 개발에 활력을 주고 고차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의 floral패턴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은 당대의 예술 양식과도 맥을 같이하므로 예술성이 가미된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고, 고전과 현대의 미적 감성과의 접목으로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점도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바로크 시대의 직물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이태리의 직물과 프랑스 견직물 생산의 중심지인 리용 직물, 영국의 직물에 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문헌을 중심으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직물사진 및 서양복식의 유물, 회화자료를 중심으로 총 327점을 관찰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Sun-Haw Lee

Tel. +82-51-200-3374

E-mail: rouge2d@hanmail.net

2. 바로크 시대의 일반적 고찰

2.1. 사회문화적 배경

바로크(Baroque)는 서양 예술사의 한 시대이며 16세기 말경 이탈리아에서 전개되었으나, 17세기에 프랑스에서 꽃피우고 결실을 맺었다. 바로크라는 용어는 스페인 말 바루카(barrucca) 혹은 포르투갈 말의 바로코(barroco)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이항성, 1964).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는 형태가 불규칙한 진주를 일컬을 때 사용하였던 용어이다.

바로크는 절대주의 양식으로 무한한 권력을 가진 전제군주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중앙집권화 된 국가체제이다. 특히 태양왕으로 불리우는 루이 14세(Louis XIV세, 1643~1715)의 절대권력의 궁정양식은 베르사이유를 중심무대로 왕권을 과시하며 화려함과 성대한 것을 선호하였는데, 이 시기가 바로크 문화의 절정을 이루었다. 즉 궁정을 중심으로 한 호화찬란한 예술로서, 궁정취미를 복돋아 장엄하고 위풍이 당당한 표현을 위주로 한 장중성과 장식의 화려함을 추구하였다(양희석, 1980).

17세기의 유럽은 르네상스에 의해 싹튼 근대 정신이 확립된 시기로 왕권이 절대주의화 한 시대이다.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왕권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건립되고, 국왕들은 식민지를 획득하고 상공업을 발전시켜 경제력을 키웠다. 시민들도 부를 축적하게 되어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왕조의 권력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 물질 찬미가 성행하게 되었다.

17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정치적 권력은 프랑스가 중심이 되었다. 광대한 국토, 우세한 국민, 국제적 상업도시의 발전 등은 프랑스를 급속도로 발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영국과 함께 세계 상업무대에서 다투게 되었다. 복식문화상으로도 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나, 모든 조건이 유리한 프랑스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항상 주변의 시선을 이끄는 대상으로서 변화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위력으로 주도권을 잡았다(정홍숙, 1997).

이 시기 유럽의 직물산업은 직물 제작법과 문양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이어진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프랑스의 리용 등은 대표적인 직물 생산지인데, 르네상스 이후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유럽직물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피렌체, 제노아 지방에서 생산된 직물은 르네상스 시기부터 실내장식과 복식의 발달에 큰 몫을 하였다. 단색과 광택이 있는 여러 가지 색의 베네치아 벨벳은 인기가 대단했고, 내부장식용의 베네치아 능라(綾羅)는 세계 어디에서도 모방하지 못했다. 광택이 없는 것과 광택이 있는 표면의 다마스크,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문양이 있는 견직물은 매우 화려하고 훌륭했으므로,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 직물의 수입을 견제하였다.

유럽패션의 중심이 되고자하는 프랑스의 욕망은 1589년에 즉위한 헨리 4세(1589~1610)와 루이 14세(1649~1715)가 직물 생산의 후원과 예술에 관한 관심으로 최고의 복식과 견직물 생

산을 탄생시켰다.

이 당시 직물은 실내장식의 중요한 요소였으며, 왕궁에는 호사스러운 실내장식과 하루에도 몇 번의 옷을 갈아입는 등 패션을 위해 직물이 다양하게 끌고루 갖추어져 있었고 당시의 재산 목록을 보면 모든 종류의 직물을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직물의 소비량도 엄청났다.

최대 호화로운 직물은 고블랭(Gobelin)직으로, 궁정을 위한 직물을 제작하였던 고블랭 직물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다. 당시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치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로 화려한 브로케이드, 레이스, 벨벳, 사틴 등의 직물 수입이 대단하였으며 직물에 대한 사치가 극도에 달했다. 고블랭 직물공장도 1685년 이후 비싼 금사, 은사의 사용을 금지 당하였다.

2.2. 바로크 예술 양식

바로크 예술양식은 하인리히 뵐플린의 연구에 이르러 하나의 양식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였고, 그것의 특징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져 바로크 양식의 미적 가치를 명확히 하였다.

그 특징은 비정상, 기괴함, 과장, 과도한 장식, 불규칙적이고 화려한 것, 정형화된 규칙이나 비례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활기에 찬 것, 강력한 동적 자세, 격렬하게 타오르는 감정이라든지, 장중하고 약동적·생명력, 철저한 현실주의적 경향(장문호, 1977)으로 직접 감정에 호소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양희석, 1980).

이러한 바로크 양식은 공예, 직물에서 그 특색을 강하게 나타내며 또 그 전성을 이루었다.

바로크 건축은 감동을 주기 위한 것으로 왕궁이나 교회를 짓기 위한 것이었다. 건축의 외부는 곡선적 이면서도 대칭적인 한편, 건물의 내부는 풍부하게 장식적이었다. 즉 건축의 장중성과 화려함에 중점을 두었으며 풍부한 실내장식, 생생한 색채, 화려한 소재를 강조했다. 곡선과 타원형의 많은 돌출부와 풍부한 장식들, floral, 아라베스크 문양 등은 복잡하면서도 화려하게 바로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원주를 나선형으로 만들거나 파상선의 이용 등으로 지주보다는 더욱 장식에 치중하여 호화롭게 꾸며졌으며, 또 건축물의 기능적 요소들인 벽, 벽기둥, 기둥을 보완하고 장식하기 위하여 금색의 직물 사용이 두드러진다.

바로크 양식의 건축 중에서 가장 호화 현란한 건물은 무엇보다도 루이 14세가 기획한 베르사이유 궁전이다. 당시의 가장 우수한 예술가들의 재능과 노련으로 지은 바로크 건축의 대표적 건물로서 장식적 기회의 최대 최고의 전형이기도 하다. 이 건축물의 외관이 웅장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부장식의 화려함도 비길 데가 없다. 그 중에서도 “거울의 방”은 거울을 장식한 아름다운 무도회장으로 그 특색이 두드러진다. 황금색조의 소용돌이 곡선, 외선형의 조화와 묘미를 강조하여 풍부하고 복잡한 장식 문양의 호화성으로 나타내어 바로크 양식의 진미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 의미에서는 공예에서 바로크 예술의 특징이 가장 잘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가구에서와 타피스트리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가구가 지닌 구불구불한 형태나 뇌문 형태의 장식은 주로 소용돌이치는 외선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곡선으로 된 복잡한 형태, 과다한 장식, 화사한 느낌은 바로크 양식의 전형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당 시대의 프랑스 예술 공예가 더 발전하게 된 계기는 특히 루이 14세, 명재상 장 팜피스트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 1619~1683)의 정치적 뒷받침과 장식이자 텍스타일 디자이너인 샤를 르 브란(Charles Le Brun, 1619~1690) 세 사람의 활약으로, 콜베르가 프랑스 예술품들의 제작을 관리하고 미술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여러 단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독려한 결과였다(김미정, 1998).

그는 직물산업을 위해 리옹과 같은 몇몇 도시에 직물 공장 설립을 장려하였으며, 왕립공방을 만들었다. 당시 고블랭 공장은 직물생산과 타피스트리의 제작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예술과 공예도 제작하였으며, 금은 세공, 주물, 판화, 카펫제작, 돌 세공, 가구제작, 염색 기술자들의 양성소 역할도 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이너인 샤를 르 브란은 왕실의 후원으로 왕립 아카데미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으며 고블랭직, 많은 타피스트리와 직물제작으로 탁월한 장식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매우 활발하게 제작된 타피스트리는 귀족들의 저택에 모든 방마다 둘러쳐져 있었다. 이 같은 타피스트리의 유행은 귀족들의 재정적 후원을 받게 되었고 프랑스의 타피스트리 산업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며, 전 유럽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왔다. 이것은 화가나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의 그린 밀그램을 기본으로 제작하였는데, 내용의 주제는 자연주의적 배경을 소재로 한 인물상, 왕과 귀족의 생활상에 소용돌이 형식으로 가장자리 테두리를 회화작품의 액자와 같이 꽃 장식을 하거나, 금사, 은사를 사용한 floral패턴으로 화려롭게 표현하였다.

2.3. 바로크직물의 텍스타일 디자인

텍스타일(textile)이란 직물을 만드는 섬유, 실, 제직 또는 편성제품과 펠트, 그물, 레이스, 수예품 등을 포함하는 각종 섬유 제품을 말한다. 이 용어는 라틴어의 섬유디자인을 통칭하는 것으로 *textileis*의 동사 *texere* 즉, 짜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텍스타일 디자인이란 섬유의 재질위에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나 색상의 변형을 짜거나, 표면장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섬유디자인, 직물디자인, 서페이스 디자인, 평면 무늬 디자인,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등으로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에 지칭하는 것으로 floral패턴에 나타난 텍스타일 디자인을 언급하고자 한다.

당시의 패턴을 담당했던 화가나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은 floral을 패턴의 모티프로 애용하게 되었는데 이 전 시대에는 종교 중심의 사회구조로 종교적 내용의 패턴이 대부분이었으나, 이 시기에는 자연주의 사상을 중시하고 바로크 예술 양식에서

와 같이 현실주의적, 일상적인 것에서 예술의 주제를 삼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화가들은 floral패턴을 통하여 자신들의 예술적 감각을 발휘하여 직물 생산에 활기를 불어일으키고, 군주 귀족들의 화려·호사한 의식을 과시하고 장식하려는 표현 수단을 충족시켰다.

당시 화가들은 직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그들이 직접 참여하여 밀그램을 그리고, 직공들은 직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직물 생산이 진행되었다. 텍스타일 디자이너들 중에는 화가가 많았고, 그들은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디자인을 하거나 좋은 디자인은 흔히 복제되었다(Kax, 1979). 따라서 당시 직물공장에서는 단순한 직물이 아니라 예술작품으로서의 직물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작업들은 직물 패턴 개발과 직물에 표현하는 패턴의 미적인 발달을 가져오는데 큰 몫을 하게 되었다.

바로크 직물의 floral패턴이 이 전 시대보다 더욱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숙련된 기술자와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활약과 프랑스의 건축물 공장에서의 새로운 기술 및 패턴 책의 발간 등이다.

당시의 예술 양식에서 보여주는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에서 분출하는 자유분방함이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울동감을 나타내는 곡선의 예술적 표현으로 그 특징이 보여진다. 길게 이어지면서 소용돌이치듯 굽이치는 곡선으로 된 복잡한 형태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다채로운 색상의 사용은 격렬하게 타오르는 감정이라든지, 장중하고 약동적·생명력 등을 표출한 패턴들로 동적이며 환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나무와 꽃과 잎 등을 이용하여 복잡 다양한 구성을 이루거나, 지나치게 장식화 된 floral패턴의 성행은 미적 가치를 장식적 가치로 파악했기 때문이며 정형화된 규칙이나 비례로부터 벗어난 그 시대의 미술을 잘 대변해 준다.

바로크 양식의 부정형이나 유동적인 조형 요소들이 충만한 생동감, 장중한 위압감을 표현하던 것이 18세기 로코코 양식에 계승되면서 여성적이면서 감각적인 세련됨으로 이어져 floral패턴이 직물에 직조되거나 자수로 형상화된다.

3. Floral 패턴의 조형성

3.1. Floral패턴의 구성요소

바로크 텍스타일 디자인은 자연의 소재, 그 가운데 floral패턴을 응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의 산물 중 가장 아름다운 꽃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예이다. 패턴은 꽃을 포함하여 잎, 줄기, 덩굴, 씨, 봉우리, 열대식물, 수초, 나무 등 식물과 관계된 모든 소재를 의미하지만 대부분 꽃 자체가 강조되는데 특성이 있다.

직물사도록, 서양복식유물 등에서 수집한 자료 327점에서 floral을 구상형과 추상형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구상적인 형태의 꽃보다는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꽃의 종류가 많이 나타난다. floral패턴의 구성요소는 매우 다양한데 크게 8가지로 분류

해 볼 수 있으며, 출현율은 Table 1과 같다.

꽃과 잎 : 꽃은 르네상스 시기부터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사용이 두드러져 바로크시기에는 다양한 형태로 패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시기의 꽃이나 잎사귀의 모양은 양식화되고 큼직 큼직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크고 긴 꽃잎이 여러 장으로 형태를 이루거나, 상하좌우 방향을 바꾸어 가며 위치하고 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큰 꽃잎 하나하나 안에 작은 꽃 모양이나 꽃가지의 형태를 축소시켜 가며 표현하거나, 꽃과 잎을 따라 가장자리 선을 둘러치고 있는 모양에서 마치 잎들이 계속 자라고 있는 듯 생동감을 보이고 있다.

큰 잎의 모티프는 아칸서스 잎의 활용이 많으며 넘실거리듯 크고, 작은 곡선을 이루며 위 아래로 향하여 있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아칸서스는 건축의 주두에 활용된 장식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패턴이며 정교하고 우아한 당초형으로 식물계에서 차용한 모든 장식 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꽃과 잎의 특성이 어우러져 간략화 되면서 모티프가 갖는 표현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간략화되고 평면적 이어서 자칫 지루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갖기 쉬운 패턴인데, 바로크 장식미술의 특징인 C자형의 곡선미를 가미하여 오히려 경쾌하고 생동감있는 미적표현을 하고있다. 당시의 floral 패턴은 어떤 형태로든지 곡선을 덧붙여 나타내고 있으며 큰 곡선의 활용은 더욱 유연한 느낌과 운동감을 주면서 패턴의 대담한 성격과 잘 조화되고 있다(Fig. 1, 2).

꽃과 잎, 과일 : 꽃과 과일, 잎 등의 모티프의 활용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주체가 되는 크고 작은 꽃과 잎, 열매는 계속해서 피어나고 자라고 있는 듯이 가지에 붙어 있다. 꽃과 나뭇잎이 담백 담겨져 패턴 자체가 가지는 미적 표현은 안정되고 우아하다. 꽃잎 하나 하나의 정교한 표현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양 등이 복잡하고 상당히 풍성하게 취급된 것은 주로 루이 14세 시대의 것이다.

구상적인 열매의 패턴은 흰 꽃 엉겅퀴, 석류, 포도, 딸기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자주 사용되고 있는 흰 꽃 엉겅퀴는 석류에서 유래했으며 파인애플로도 알려져 있다(Kax, 1979). 석류패턴은 풍요로움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최고급 품질의 소재에서만 사용하였으며, 중요한 종교의식이나 귀족계급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했다. 석류를 표현하는데 있어 때로는 원래 석류가 잘 익어 벌어지는 형태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변형된 모양이나 간략하게 묘사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포도는 다른 여러 소재들과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보리이삭과 같이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쓰여졌다.

Fig. 1. 람파스, 40×25 cm. Fig. 2. 브로케이드, 180×54 cm.

꽃과 기하학 : 꽃의 기하학적 패턴은 바로크 이전 시기에 매우 유행했으므로 초기에 빈번히 나타난다. 구상적인 작은 석류, 꽃, 아칸서스 잎 등이 타원형의 구성 안에 축소된 채로 묘사한 것은 초기에 많이 볼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 같은 꽃과 잎 모양을 단순화시켜 일률적인 간격의 사선을 이루거나 패턴(단한 공간)과 평면적인 반복 패턴으로 나타내고 있다. 단조롭고 양식화된 꽃 패턴은 완전대칭을 이루고, 잎사귀는 사방으로 기하학적인 꽃을 보호하듯 둘러싸고 있는데 꼭 짜여진 담담함과 단조로운 색의 사용으로 변화감을 가질 수가 없다. 장식 창 격자(ornamental tracery)는 식물 패턴으로서는 당시에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꽃잎을 활용한 기하학적 모티프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패턴의 내용이 풍부해지게 되었다(Fig. 3).

꽃과 테두리장식 : 17세기 중엽부터는 실내장식을 위한 식물에서 테두리 장식이 나타난다. 띠의 제작은 벽면용의 벽지와 판넬에 테두리를 붙이거나 커튼, 침대 덮개의 테두리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테두리 장식이 있는 직물은 가운데 패턴이 균형 잡혀 있어 깔끔한 인상을 갖게 하며 테두리 패턴은 본체 패턴의 일부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2개의 양식화된 작은 꽃을 위 아래로 대칭되게 표현하고 있다(Fig. 4).

꽃다발 : 꽃과 잎들이 함께 다발로 묶인 모양은 당시의 인기 있는 장식 모티프인데, 이는 예술가들이 자연적인 꽃들을 패턴으로 활용할 때, 꽃 뿐 아니라 다른 장식들과 섞는 것이 그 당시의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부케 형식은 리본, 꽃 줄 등을 이용한 꽃 장식으로 자유롭고 우아하게 발달하였다. 복잡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형태의 꽃에 받침대가 있고, 예쁜 잎줄기가 리본형태로 묶여 있

Table 1. Floral패턴의 구성요소

요소	꽃과 잎	꽃과 과일, 잎	꽃과 기하학	꽃과 테두리 장식	꽃다발	꽃과 단지	꽃과 동물	꽃과 문장
출현률(%)	35.26	20.36	19.71	9.29	6.09	3.21	2.24	1.92

Fig. 3. 람파스, 55.5×107 cm.

Fig. 4. 브로케이드, 116×27 cm.

거나, 큰 꽃을 작은 가지나 잎으로 연결하고 리본을 활용하여 부드럽게 연결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꽃의 묶음들은 크거나 작게 혹은 길쭉한 형태 등으로 변화를 주면서 울동감을 생기게 하고 전체적인 느낌은 여유로운 듯 우아함을 갖게 하며 화려한 표현을 하고 있다.

꽃과 단지 : 꽃 단지는 고전적이고 옛날부터 있어 온 장식이지만, 제노아나 베네치아의 견직물에서는 16세기 이후부터 보여진다. 꽃이 단지에 꽃혀져 있는 주제는 꽃보다 화분, 단지의 크기가 작아 불안정한 느낌을 주며 커다란 잎이 넘실거리고 있다. 단지로부터 가지가 넓게 퍼지기도 하고 또 가지가 단지를 싸고 있기도 하고, 이 같은 주제는 17세기 꽃의 화가 영향으로 프랑스 장식에서 많이 애용되었다(北村, 1976) (Fig. 5).

꽃과 동물 : 꽃 패턴이 15세기부터 나타나면서 동물 패턴들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16세기에는 그 전 시대에 많이 보

Fig. 5. 다마스크, 162×59 cm.

여지던 새의 패턴들도 자취를 감추었다(Kax, 1979). 르네상스시기에 문양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는 동물패턴이 사라지면서 꽃 패턴이 독점화하고, 바로크시기에는 꽃 패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간혹 꽃과 동물들의 패턴이 혼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때 동물 형태의 크기는 작아지는데, 예를 들어 사자의 형태를 모티프로 사용할 경우 사자의 본성인 용맹스러운 느낌보다는 동화속에서 나오는 사자인 듯 귀엽게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꽃과 문장 : 추상적인 큰 꽃잎 안에 문장을 새겨 넣고 있다. 이 때 문장은 상징적 의미는 갖지 않으며 다만, 당시에 유행했던 꽃을 이용한 패턴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큼직하고 활짝 핀 꽃송이 안에 백합(百合)문장을 새겨 넣은 패턴은 위와 아래로 향해져 있다. 잎의 형태는 울룩불룩하고 아주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다소 복잡한 듯 하고 둔하게 느껴진다. 문장이 꽃봉오리와 같이 취급되어 문장 주위에 꽃잎과 잎이 달려 있기도 하고 열매 안에 씨처럼 느껴지게 디자인되어 있다(Fig. 6).

3.2. Flora패턴의 특징

바로크 시대의 직물에 나타난 floral패턴을 미적 형식원리인 형과 색을 대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크 스타일은 주로 17세기 후반(1660~1685)으로, 루이 14세의 집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스타일을 말하는 데(차임선, 1998), 루이 14세가 유럽직물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전기는 루이14세가 동용하기 이전을, 1660년 이후는 후기를 말한다.

형 : 형은 사물의 생긴 모양, 생김새를 말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기본 요소이다. 바로크 시기의 floral패턴의 형을 살펴봄에 있어서 크기, 표현, 구성, 배치 등을 시기에 따른 변화에서 그 특징을 고찰해 볼 수 있다.

바로크 전기에는 floral패턴의 크기가 크고, 후기로 갈수록 다

Fig. 6. 다마스크, 69×51 cm.

소 작아지기는 하지만 꽃 모티프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Kax, 1979). 대부분 크고 대담하게 나타나는데, 그 일례로 중심축 구성으로 된 한개의 패턴 크기가 54×180 cm인 것도 있으며 이것은 주로 벽걸이, 벽장식 등에서 많이 발견된다.

또, 하나의 모티프가 55 cm×90 cm 정도의 큰 것은 같은 색상, 한 종류의 직물로 침대 덮개, 침대 여단, 의자, 베개, 벽지 등에 모두 사용하고 있다. 장엄한 방에 휘장이나 등이 높고 팔걸이가 넓은 의자에 사용된 큰 꽃을 장식한 패턴은 상류층 계급을 위한 직물에서 나타나는 관계로 당시대의 군주체제를 반영하는 거대한 느낌, 권력의 상징으로 보아지고 강렬한 감정, 약동적인 힘의 동세를 가지게 한다.

floral패턴의 표현은 양식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으나 단순하고 양식화시킨 모티프가 바로크의 전 시기에 걸쳐 주류를 이루고, 후기에 가서 사실적인 표현이 약간 나타난다. 이 같은 현상에서 점차 나아지는 직조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낭만주의 시대로 들어서는 로코코 양식의 여성적이고 섬세한 경향의 예술적 양식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식적 표현의 특징은 다소 덜 세부적이어서 둔탁한 꽃잎의 모양으로 나타나 평면적이고 단순함을 주기 쉬우나 이 시기의 floral패턴은 곡선의 활용으로 그다지 단순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전체적인 느낌에서 동세, 운동감을 느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양식화된 모티프의 예를 살펴보면 Fig. 7-9에서 볼 수 있다.

Fig. 7은 17세기 초 견직물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연한 올리브 바탕에 연한 갈색의 꽃 패턴을 나타내었는데 두 장의 큰 잎이 위로 아래로 향해져 있으며, 잎의 모양을 울룩불룩하고 조밀하게 표현한 것에서 복잡한 듯 하면서도 역동적인 형식의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Fig. 8은 튜올립 모양을 소재로 한 양식적인 모티프로 표현한 패턴이다. 이 소재는 바로크 직물의 전기에서부터 17세기 후반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인데 튜올립의 잎과 가지를 울룩불룩하게 처리하고 가지를 비틀고 교차시켜 경쾌함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서 튜올립이라든가 카네이션과 같이 경작된 꽃들이 새로운 패턴의 주제로 등장하여 활용됨을 볼 수

Fig. 7. 벨벳, 17×22.5 cm.

Fig. 8. 벨벳, 74×26 cm.

Fig. 9. 백작부인.

있다.

Fig. 9는 주로 복식에서 양식화된 모티프를 사용할 경우, 두 종류 내지 세 종류의 floral을 기하학적 형태로 만들거나, 도안 화시켜 큰 변화없이 연속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단조로운 느낌을 주면서 복식의 표면 전체에 양식화된 패턴을 여백이 거의 없도록 꽉 채워 답답함을 보여준다.

사실적 모티프는 패턴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태와 색상을 고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적 모티프로 지칭하기보다는 사실적 경향의 모티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적인 표현은 17세기 말경에 조금씩 나타나는데, 섬세하고 정교하게 가능한 자연 그대로를 재현하려고 한다. 꽃다발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부드럽고 환상적인 경향을 볼 수 있으며, 모피, 자수, 비즈 장식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직물에 표현된 예이다. 꽃과 잎사귀의 모양은 더욱 섬세하고 입체감이 있으며 18세기의 복식에서 활용이 많고, 로코코 예술양식이 floral패턴에 반영된 특징이 보여지는 것이다(Fig. 10).

Fig. 10. 벨벳, 92×66 cm.

바로크 floral패턴의 구성양식에서 전기에는 르네상스 시기의 굵이치는 듯한 사선 덩쿨이 다소 보여지다가, 곡선이 더욱 휘게되어 C자형의 덩쿨로 전환됨을 볼 수 있다. 덩쿨형은 꽃·봉우리·열매·싹·잎 등을 조합하여 한 과상 선의 줄기에 얽어 번성하고 화려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의 덩쿨은 교차됨과 비틀림으로 나타나고, 표현된 모양은 횡적인 것보다 종적인 표현이 주류를 이룬다. 덩쿨의 과상선은 전체적으로 윗동감을 지니면서 때로는 굵고 강하게, 또는 가늘고 연약해서 섬세함을 나타내며 다양한 곡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동덩쿨 패턴과 소용돌이의 곡선이 멋지게 얽힌 모양으로 표현되어, 전체적인 느낌은 곡선의 굴곡을 다양하게 하여 윗동감을 지니게 한다.

Fig. 11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이 나타난 주제이며 당시 유행하던 패턴 중의 하나인 튜울립 모양을 한 꽃을 모티프로 활용하고 있다. 굵은 덩쿨가지에 움직이는 듯 얽혀 전면 배치를 하여, 전체적인 꽃과 줄기의 자유분방한 표현으로 불타오르는 듯한 착각을 갖게 하는데 이것은 색의 사용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랑색 바탕에 붉은 색과 검정색의 패턴으로 디자인하여 더욱 생동감있게 움직이며 힘차게 자라고 있는 듯하다.

Fig. 12는 튜울립과 해바라기를 연상케 하는 꽃 패턴 주위에 아름다운 곡선을 이용한 당초형으로 얽혀 있다. 꽃과 잎의 표현에 있어 세부적인 묘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덩쿨선은 가늘면서 자연스러움을 갖게 한다. 이러한 꽃송이와 잎들의 구성, 표현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어떠한 규칙을 가진 듯 하고, 꽃의 줄기나 잎이 이리저리 꼬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곡선을 활용한 덩쿨 구성은 캡, 상의, 재킷, 드레스 등의 여성을 위한 복식에서 덩쿨 선의 굵기와 곡선의 크기에 변화를 주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는 덩쿨 선과 작은 크기의 딸기와 잎, 작은 꽃과 잎 등을 소재로 하고 흰 바탕의 공단에 전면으로 연결되어 덩쿨선을 따라 색색의 실로 표현하며 의복 전

Fig. 11. 벨벳, 120×62 cm. **Fig. 12.** 세틴, 94.5×58.5 cm.**Fig. 13-1.** 부분.**Fig. 13-2.** 여성상의.

체에 배치하고 있다. 비교적 사실적 형태를 지닌 열매와 잎의 조화로써 세련된 아름다움을 갖게 한다(Fig. 13).

바로크의 엄격한 예의절차와 궁정예술의 장엄하고 형식적인 것을 지향함이 바로크 직물패턴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실내장식을 위한 벽걸이, 의자, 가구 등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두드러지는데 중심축 구성으로 된 완전대칭의 엄격한 구도에서 볼 수 있다. 이 같은 특징은 당대의 예술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바로크 양식의 중후감, 웅대하고 때로는 거대하기 조차한 느낌을 보여준다.

Fig. 14, 15는 실내 장식만을 위한 것으로 가운데의 꽃 모티프를 아름다운 꽃가지들이 C자형으로 둘러주고 있다. 디자인의 연속되어 가는 모양이 하나의 동기만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일종(單一縱)모양 단위라고 한다(北村哲, 1976). 이 시기의 후반에 들어서 표현이 정교해지므로 꽃과 잎의 세부설명을 함에 있어 과잉 장식으로 나타나 때로는 복잡하기 조차하다. 바로크 전기에 비해 자유로운 형상을 나타내며 곡선의 활용에 있어 더욱 커지고, 스케일이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다. 바로크 장식 예술의 핵심인 C자형은 로코코 양식에서는 구성이 S자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난다.

바로크 직물의 패턴은 과잉 장식적이라는 예술양식의 배경으로 호사스러운 직물을 선호한 까닭에 패턴이 직물의 전체를 메우고 있는 것이 많이 발견된다. 즉 바로크 시기의 floral패턴

Fig. 14. 람파스, 210×49 cm. **Fig. 15.** 람파스, 288×66 cm.

은 충전형(充填形)과 산점형(散點形)이 거의 차지한다. 충전형은 직물 전체에 패턴을 가득 채우는 형식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방법으로 나타난다. 산점형은 표면을 같은 단위 면적으로 나누어 그 안에 단위문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로제트문이나 꽃과 기하학의 형식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사물을 그대로 그리듯이 묘사하는 회화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18세기의 직물 패턴에서 볼 수 있다.

색상 : 패턴에서 나타나는 색채의 미적 효과는 직물의 색채와 패턴에서 느껴지는 색채대비를 통해 매우 다양한 효과를 갖게 한다. 이 시기의 floral패턴의 구체적인 색채표현은 첫째, 황금색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둘째, 바탕색과 패턴의 색상이 동일 계열의 색 내지는 보색의 대비, 명암의 차별로 대비를 증대시켰으며 셋째, 다채로운 색상의 사용이다.

첫째, 밝은 색 바탕에 금의 조화, 검정바탕에 금의 배합으로 색의 대비를 주로 한다. 즉 금사·은사·금색·황금색이 빈번하게 사용되어 직물 표면 장식에 활기를 더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지나친 사용으로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였다. 이 같은 금색의 사용은 당시 군주체제와 궁정예술문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귀족계급이나 궁정생활 복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신분의 위엄, 부의 과시를 위함이다.

둘째, 그린·레드·밝은 노랑·청색·보라·황금색의 조화는 강렬한 색의 대비이다. 루이 14세의 초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가 걸친 가운은 청색 바탕에 황색문장으로 보색의 조화를 하고 있다. 강렬한 원색끼리의 조화 내지 반대색의 사용은 당시의 궁정생활을 대변할 수 있는 장엄함과 귀족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또한 바탕과 패턴의 색에서 동일 색상에 명도의 차이만을 두거나 두 색상의 인근 색을 사용한 것을 볼

Fig. 16. 벨벳, 140×53 cm. **Fig. 17.** 벨벳, 222×61 cm.

수 있다. 이것은 단조로운 색의 사용으로 자칫 평면적으로 느껴지지만 저 채도의 색을 사용하여 안정되고 고급스러움을 갖게 한다. 그리고 2도 색의 사용이지만 색상 차를 크게 하여 아플리케이션 느낌으로 패턴자체의 형태를 뚜렷이 드러내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 신선하고 활기찬 색상의 사용으로 그 효과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셋째, 다채색의 화려한 색에서 주로 왕과 귀족들은 심홍색, 초록색, 갈색 등을 많이 사용하였고, 궁정의 실내장식을 위한 직물에서의 색채는 노란색, 암청색, 빨강색, 자색, 갈색 등이 선호되었다. Fig. 16의 경우 벨벳에서 보여주는 색채의 특징은 깨끗하고 밝은 파스텔 색조, 연록색, 장미색 등이 많이 나타나고, 노랑색, 주황색의 밝은 톤으로 인해 무척 화려함을 갖게 하고 다양한 색의 염료 개발로 인해 야광의 빛을 느끼게도 한다. 갈색은 루이 14세의 기호색이며, 빨강색은 루이 14세의 침실 내부장식이나 여자를 위한 의상에 애용되었다.

floral패턴의 색상은 당시의 예술 양식의 영향으로 화려한 색조와 뚜렷한 색상배합에 따르는 조화미가 극치에 달했다. 그러나 전기에는 바탕 직물의 색과 패턴의 색채가 단조로운 색의 사용, 즉 두 가지의 색상만으로 표현된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후기로 갈수록 다채로운 색상의 사용으로 꽃을 섬세하고 보다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패턴의 음영을 표현하기 위해 3~4도의 색을 사용함도 볼 수 있다. Fig. 17과 같은 현상은 후기에 들어서 직조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염법의 전래로 다양한 색의 사용이 활발하게 되어 강렬하고도 화려함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floral패턴의 형과 색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본 결과 아래 Table 2와 같다.

3.3. Floral 패턴의 표현방법

문직 : 루이 14세의 통치기간 동안 리옹에 직조기를 설치하려는 노력과 양잠업의 생성으로 직물산업의 발전을 고무시켰다. 당시의 문직기를 사용한 패턴 실크 직물은 다마스크, 벨벳, 브

Table 2. Floral 패턴의 특징

	형	색	
전반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화 된 커다란 꽃, 단순화 • 곡선적, C자형, 덩쿨형, 전면배치 • 완전대칭, 중심축 구성, 단일종 모양, 이중종 모양 • 지그재그, 규칙 · 불규칙의 연속 반복 • 대담하고 화려, 풍성함, 유동감 • 복잡하고 산만, 굵고 강한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붉은색 바탕에 금색, 검정 바탕에 금색 • 황금색, 청색, 진한갈색, • 심홍색, 초록색, 갈색 • 빨강색, 암청색, 자색, 노란색 • 파스텔색조, 연록색, 장미색 	
시기별 특징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턴의 크기가 크다. • 단순화, 평면화, 양식적인 꽃이 주류 • 꽃이 기하학적 • 사선 → C자형 • 둔탁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조로운 색의 사용 • 명쾌한 표현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턴의 크기가 다소 작아진다. • 섬세, 사실적 표현이 나타남. • C자형 → S자형 • 정교한 표현의 세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의 음영 표현 • 다채색의 사용 • 입체감 표현

로케이드 등으로 이것은 당시의 실내장식을 위한 직물, 침대의 천장에 드리워진 직물이나, 침대의 여단이 막, 배드 커버, 베개, 쿠션, 의자, 의자방석, 휘장직물, 테이블 커버, 벽걸이 등에 사용되었다. 이 직물들에서 패턴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주로 귀족이나 왕궁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베르사이유 궁전의 실내장식용품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주문제작 방식의 호화스럽고 값비싼 직물에 속하는 것들이다. 실내장식을 위한 문직의 패턴은 바로크 양식의 가구에 걸맞은 웅장한 느낌의 스케일로 직조되었다. 거대하고 장식적인 가구에 사용된 패턴의 크기는 당시의 예술성을 반영한 패턴으로 실물보다 크게 표현되며 직물전체를 채우고 있다.

직물의 특징은 빛나는 직물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금사가 들어간 화려하고 무거운 느낌의 직물을 많이 이용하였다. 궁정에서의 요구에 따라 견에 금과 은을 섞어서 제작한 매우 고급스러운 직물 생산으로 장식적 효과는 극도에 달했다. 견과 금사를 이용한 다마스크의 직조는 현란한 아름다움을 더하고, 금색 브로케이드는 금속성 실을 디자인 자체에 포함시켜 입체감을 보이는 최고급 직물들로서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하듯 매우 화려하고 과잉 장식적이었다. 금·은사로 화려하게 장식된 직물, 패턴으로 가득 메운 직물들은 이 시대사조의 반영이었다.

문직에 의한 패턴은 꽃과 잎, 열매의 무늬를 주제로 하여 수많은 양식들을 재해석한 새로운 패턴 창출을 하고 있는데, 구상적인 floral보다는 초현실적인 추상형이 많이 발견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직조술의 발달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패턴의 표현이 더욱 정교하게 직조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자수 : 바로크의 호화로운 의상 취향은 자수의 발달을 더욱 활발하게 했다. 자수는 복식용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예복과 제단 앞의 장식용, 벽걸이 장식 등 교회의 실내장식, 의자와 테이블 커버, 그리고 특히 침대 등에 사용하여 당시의 호사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최고의 표현수단으로 애용되었다.

자수를 이용한 패턴의 크기는 문직에 의한 것보다는 작으나, 직물의 크기는 다른 제작법을 활용한 직물에 비해 큰 편에 속한다. 패턴의 구성은 덩쿨형이 대부분이고 단독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실내장식, 침대를 위한 자수는 금잔화, 양귀비 등을 소재로 하여 광택이 있는 바탕 직물에, 밝고 아름다운 색상을 이용하고, 패턴을 정교하게 거의 메우는 기법을 사용하여 무척 아름답고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백합이나 인동 혹은 카네이션, 딸기 같은 것은 작은 모티프를 주제로 사용한 비교적 사실적인 꽃의 모양은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이 단순한 표현은 주로 한가지 색상을 이용하여 자수를 하였는데 주로 버튼홀 스티치, 체인스티치, 코드와 블레이드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을 이용한 것은 커튼이나 베개 등의 실내장식용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으로 직물의 크기가 큰 것을 필요

Fig. 18. 자수(부분).

Fig. 19. 제의

Fig. 20. 벨벳, 58.4×213.4 cm.

Fig. 21. 테두리장식용 레이스(부분), 316×13 cm.

로 하는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다(Fig. 18).

복식에서의 자수는 개인의 부와 신분의 표시로 화려한 의상에는 반드시 자수를 했다. 그 중에 특히 제의 등에는 금사를 사용한 자수가 두드러지는데 밑바탕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금색의 사용은 더욱 화려하고 현란함을 갖게 한다. Fig. 19는 당시의 호사스러움과 신분의 높음과 부의 과시 수단, 그리고 극도의 사치스러움을 보여 주는 예이다. 양식화된 카네이션, 들국화 같은 꽃 패턴을 뺄뺄이 매워 크기의 큰 변화 없이 반복적이면서 상하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원래의 천마저 거의 파묻힐 정도이다. 여성의 가운이나 망토 등에서도 이러한 특징과 구도가 나타나는데 직물자체의 무게가 엄청났다. 메트로폴리탄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흰색 벨벳에 꽃 패턴을 자수한 것인데 사실적인 형태의 몇 가지의 작은 꽃, 잎이나 줄기들을 보다 정교하고 입체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밝고 깨끗한 이미지의 7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마치 색색의 꽃이 가득 피어있는 듯이 반복 연속적인 배치로 직물 전체를 채우고 있다(Fig. 20).

레이스 : 레이스는 실내장식을 위한 것보다는 의상용으로 사용한 것이 많다. 의복의 가장자리, 칼라 장식 등, 면사포, 머리를 장식하는 리본, 신발의 앞부분을 장식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 여성을 위한 옷 뿐만 아니라 남성의 옷과 주름 단, 목도리의 꽃 장식 등에도 이용되었다. 이것은 부유층을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사용되어, 1634년에는 레이스를 만드는 것과 입을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특히 성직자와 특권계층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신분의 표시로 레이스를 이용하여 호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렸는데, 개인적인 재력으로 직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장식품만을 전용으로 제작하기까지 하였다(Madeline, 1991).

레이스에 나타나는 패턴의 크기는 문직에 비해 작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소재에 맞게 표현이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섬세한 육각형 네트를 배경으로 섬세한 꽃, 리본, 덩쿨을 디자인하여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을 주는 보빈 레이

Fig. 22. 남자복식용 칼라.

스 기법이 많다. 주된 소재로는 장미꽃과 덩쿨 손 장식이 많은데 장미꽃 패턴은 방사선 모양에 음영을 넣었고 토끼풀, 엉겅퀴도 나타났다(Madeline, 1991). 다양하고 우아하게 표현된 장미점(Lose Point)과 눈결정체(Snow Flake) 뺄뺄하게 채워진 패턴은 이시기의 사치스러운 실크 직물에서 나타나는 소재를 반영한 것이며, 나뭇잎과 꽃 패턴이 두루마리처럼 감긴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Fig. 21, 22).

4. 결 론

바로크 시대는 예술과 복식의 발전 뿐만 아니라, 직물 또한 매우 다채롭고 풍부하게 발달되어 그 패턴 등은 현대에까지 계속해서 애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당시 텍스타일 디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 floral패턴의 표현 형식 및 디자인적 요소를 살펴본 연구는 당시의 고전적인 패턴을 현대의 미적 감성과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오늘날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바로크 시기의 직물에 나타난 floral패턴의 특징에서 첫째, 주로 사용되었던 소재는 튜올립, 금잔화, 백합, 카네이션, 방울꽃, 연꽃, 아칸서스 잎, 이름을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꽃과 석류, 엉

경귀, 딸기 등이었고 이러한 모티프는 혼합되고 연속적·반복되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꽃과 잎, 과일, 꽃과 테두리장식, 꽃다발, 꽃과 단지, 꽃과 문장, 꽃과 기하학, 꽃과 동물 등의 디자인 요소로 분류할 수 있었다.

둘째, 패턴은 어떤 형태로든지 곡선을 덧붙여 미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양식화된 커다란 꽃, 잎사귀의 모양은 실제의 크기보다 매우 크고 대담한데, 표현이나 구성에 있어 곡선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형상을 나타내며 화려하게 표현된 것이 지배적이다. C자형의 덩쿨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전체적으로 운동감과 유연한 아름다움을 지닌 장식적 효과를 표현하지만 때로는 너무 장식적이어서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또 수직축을 따라 중심축구성의 완전대칭을 이룬 패턴은 자유로움 못지 않은 절대적 통일감을 이상으로 하는 바로크 양식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패턴의 구도, 구성, 배치방법 등은 실내장식을 위한 직물이나 복식용의 직물에서 큰 차별성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패턴의 표현방법은 옷감에 직조하거나 레이스, 또는 자수를 놓고 밝고 화려한 색상과 강렬한 색채 대비를 창출하고 있다. 즉 문직, 자수, 레이스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었고, 문직에 의한 표현은 다마스크나 벨벳 등을 주로 하여 견에 금과 은을 섞어서 제직하고 금색 브로케이드로 입체감을 보이며 호화롭고 현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자수는 호사스러움을 나타내기에 최고의 표현수단으로 애용되며, 패턴을 정교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가득 찬 화면구성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나타내고 있다. 레이스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소재에 맞게 패턴의 크기가 작으며 표현이 정교함을 볼 수 있다.

floral패턴은 완벽한 조화미와 색채의 미묘한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시간과 계절에 관계없이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가장 다양하고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주제이다. 또한 자연주의적 경향의 패턴은 인간성 회복과 고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환경으로 현대의 텍스타일 디자인 산업계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이므로 바로크 시대의 floral패턴은 오늘날에도 꽃을 주제로 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여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고전과 현대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의 근원으로도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정 (1997) “바로크·로코코 미술”. 시공사, 서울, p. 612
 박춘순 (1985) 프랑스직물에 관한 연구. 충남과학연구지, 239.
 양희석 (1980) “예술척학(中)”. 자유문고, 서울, p. 360.
 이항성 (1964) “바로크, 로코코(조각, 건축, 공예)”. 서울문화교육출판사.
 장문호 (1997) “서양미술사”. 형성출판사, 서울, p. 169.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서울, p. 161.
 차임선 (1985) “텍스타일 디자인”. 예경. 서울.
 北村哲郎譯 and Lyon (1976) “織物美術館” 第三권, 學習研究社, 東京.
 Kax W. (1979) “A History of Textiles”. Westview Press, pp. 185-186.
 Madeleine G. (1991) “The Illustrated History of Textiles”. Studio Editions, London.

(2002년 2월 7일 접수)